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 연준, 추가 국채매입계획 발표 임박

□ 미 연준은 다음 주 중 국채매입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, 매입규모는 금융위기 당시의 2조 달러에 비해 소규모인 수천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
- 연준의 국채매입은 더 이상 단기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시도이며,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매입을 실행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% 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매입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,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음.
- 지난 4월 4% 수준이었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지속적인 국채매입을 기대하면서 최근 2.6%까지 하락하였으며, 모기지 금리 또한 4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
-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에 따르면 연준의 국채매입 규모는 분기당 2,500억 달러로 2011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, 연준 내부에서의 반대 여론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짐.

- 지난 8월 버냉키 의장의 추가 부양책 언급 이후 주식시장은 랠리를 지속하는 등 시장은 연준의 정책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, 많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추가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지의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음.
- 또한 상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.
- 토마스 호잉(Thomas Hoeing) 캔사스 시티 연준 총재는 추가적인 화폐정책이 “악마와의 거래”와 같다고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, 미니애폴리스, 델러스,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냄.
- 일부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며, 오히려 과도한 부양책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새로운 자산 버블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.

(Wall Street Journal, 10/27)